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6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7월 10일 2025년 9월 1일 월요일

문화·역사·지식 '3대 시설' 광주 이전 본격화

국립현대미술관분관·국립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분관 이전 '급물살'
정부, 내년 예산에 용역비 총 16억5천만원 반영…균형발전의 '시금석'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시가 수년 동안 유치에 공을 들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국립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분관 이전 관련 용역비를 반영했다.

문화수도 광주의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들 기관의 이전 대상지 결정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민주당 텃밭에 대한 배려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현대미술관(5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10억원), 국회도서관(1억 5000만원)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분관 건립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다. 정부는 용역을 거쳐 이들 기관의 건립예정지(지역)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온 광주시의 바람과 달리 전국을 건립 대상지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국책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문화기관 집중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광주를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더구나 국립역사박물관은 과거 정부가 광주 이전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광주는 그동안 이들 기관 건립 후보지를 확보하고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의 경우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이 부지는 2019년 영업 중단 이후 흉물로 방치됐으나,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369억원에 매입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현대미술 전시와 미디어아트·AI 융합 콘텐츠, 그리고 호남권 수장고 기능까지 아우르는 복합 미술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경우 명분과 타당성에서도 광주입지가 제격이라고 강조한다.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이미 확보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연계한 문화 허브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진주관, 대전관에 이어 아직까지 호남에만 분관이 없는 점도 '문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현재 전주와 여수시 등이 현대 미술관 유치에 나선 상태다. 전주는 전통문화 거점 도시로서 분산균형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여수는 유휴시설 활용을 앞세우고 있다.

국립역사박물관은 과거 정부가 광주 이전을 약속했던 만큼 '미이행 과제' 성격이 크다.

광주시는 전일빌딩245와 송정역세권 등을 대안부지로 제시하며, 한국 근현대사와 민주화 역사를 집대성할 수 있는 도시적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분관은 세종에 국회 지원센터가 이미 들어선 만큼, 호남권 분관은 광주 확정론이 우세하다. 송암지구 옛 공군부대 부지, 첨단지구 등은 대학·연구기관 밀집도를 고려할 때 최적지라는 평가다.

지역 문화계는 "세 기관이 동시에 이전한다면 광주는 단순한 거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문화·역사·지식 인프라의 삼각축을 광주로 옮겨오는 것이 진정한 호남 배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광주시가 요청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국가사적 지정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옛 광주교도소와 적십자병원 등 주요 현장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기념공원·교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천억 원대 사업비를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선도사업 추진 입장을 고수하며 예산은 빠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을 재촉 비 오는 거리 지난 31일 오후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광주 북구 신안동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고인 물을 가르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국비 총 13조 799억원 확보 '역대 최대'

광주 3조6616억·전남 9조4183억
지역 현안·미래성장동력 사업 탄력

광주와 전남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총 13조 79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 3조 6616억원, 전남 9조 4183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이며 지역 현안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는 정부 예산안에 전년 대비 10.1% 증가한 3조 6616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 올해보다 4% 오른 9조 4183억원이 책정됐다.

광주는 AI·모빌리티·문화 인프라 구축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AI(인공지능) 2단계의 핵심사업인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240억원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10억원이 반영됐고 EV(전기차)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26억 8000만원, 미래차 전장(電裝) 핵심부품 플랫폼 2억 9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비엔날레전시관 55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45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테마파크 5억원, 양림 근대역사문화벨트 6억원, 충장창의문화복합공간 9억원, 어린이 아트사이언스파크 2억원도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은 도시철도 2호선 1665억원과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668억원이 반영됐으며 이상기후 대응 하수도 636억원, 노후상수도 정비 51억 6000만원, 광주권 BRT 7억 5000만원, 마륵동 탄약고 이전 15억원,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19억 5000만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64억원 등 생활인프라도 보강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는 208억원으로 전년보다 36억원 늘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전력망·첨단 R&D를 축으로 9조 4183억원을 확보했다. 신규 49건 2724억원이 반영됐고 해당 사업 총사업비는 5조4494억원 규모다.

에너지 전환 가속을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196억원과 K-Grid(전력망) 인재·창업 밸리 195억원,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에너지 실증 180억원이 핵심이며, 미래 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과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등 첨단 연구개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전남 예산안은 재생에너지 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고 분산형 전력망 고도화와 인력·창업 생태계 조성,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이 맞물리면서 산단·도서 지역의 전력 자립도 제고와 계통 안정성 향상이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예산반영을 계기로 지역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광주는 AI·모빌리티·문화, 전남은 재생에너지·전력망·R&D 삼각축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통·환경·돌봄 분야의 시민 체감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새마을금고, 상반기 1.3조 순손실…예금자 피해 우려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조 3287억원의 순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가 겹치며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1조2833억원이 소요된 것이 직접 원인이다.

지난 31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88조 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1% 감소했으며, 총대출은 181조7000억원으로 1.1% 줄었다. 기업대출은 2.7% 감소했지만 가계대출은 1.2% 늘었다.

예금자 피해도 우려된다. 총자산은 288조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예수금은 260조6000억원으로 늘어, 자산 운용 부실이 이어질 경우 예금 안전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